

‘서핑 성지’ 중문해수욕장 몸살앓는 사연

서퍼들 이용 차량 수백대
매일매일 주변 주차전쟁
해수욕 구역 침범 다반사
해수욕객 안전사고도 우려
주변 상인 “작년부터 급증”



서핑 성지로 불리는 중문해수욕장이 물러드는 서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김도영기자

해수욕장 개장 일주일일을 맞아 서핑의 성지로 주목받고 있는 중문색달해수욕장이 서핑을 즐기러 몰려드는 서퍼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흐린 날씨에도 중문 해변은 서퍼들로 가득했다. 물속에서 좋은 파도가 오기를 기다리는 서퍼만 해도 족히 100명은 넘어 보였다. 계속해서 서핑 장비를 실은 차들이 주차장으로 들어왔고, 어느새 짙은 주차장을 정리하기 위해 관리인력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주차장을 관리하는 서귀포시 색달마을회 관계자에 따르면 해수욕장 개장 이후 하루 평균 400여대의 차

량이 해수욕장을 찾고, 그중 서퍼 차량이 평균 150대에서 많으면 200대까지 몰리고 있다.

색달마을회 관계자는 “서퍼들은 장시간 주차가 많아 2주차장으로 안내하고 관광객들은 머무는 시간이 짧아 1주차장을 이용해 순환시켜 혼잡도를 줄이고자 하는데, 막무가내로 차를 세우고 가버리는 서퍼들도 많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중문색달해수욕장은 해변을 절반

으로 나눠 서핑 구역과 금지 구역이 설정돼 있다. 해수욕객의 안전을 위해 수면에 부표와 라인을 설치했지만 많은 서퍼들이 몰리다 보니 금지 구역까지 침범하거나, 파도에 밀려 들어오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었다. 해수욕장 종합상황실에서는 서퍼들에게 라인 밖으로 이동하라는 방송이 이어졌다.

서프보드를 이용해 파도를 타는 서핑은 물에 빠지면서 서프보드가

다른 서퍼와 부딪혀 이가 부러지거나 얼굴이 찢어지는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또한 파도에 밀려 해수욕객과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도 항상 내포돼 있다.

한 서핑 업체 운영자는 “작년부터 중문을 찾는 서퍼들이 급격히 늘었다”며 “서핑 문화에는 서로의 안전을 위한 에티켓도 있고 방만한 지역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문화가 있지만, 개별 서퍼들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퍼와 해수욕객이 몰리면서 중문해수욕장은 큰 혼잡을 보이고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면 방문객은 더욱 늘 것으로 예상돼 서퍼와 해수욕객의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수상 안전요원들을 통해 현장에서 위험 상황을 대비한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서퍼를 위한 안내판이나 현수막 등의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늘분화구 습지보호구역 지정 진통 예상 하늘지구발전협의회 “연구용역 신뢰할 수 없다”

속보=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시 하늘분화구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하늘분화구 일대 토지주들이 엉터리 용역이라며 용역 결과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하늘분화구 일대 토지주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하늘지구발전협의회는 최근 하늘분화구 습지 주변 생태계 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른 연구 결과에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하늘지구발전협의회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이번 하늘분화구 습지 주변 생태계 조사에서 습생식물과 노지식물의 분포 조사, 습지의 복원 계획, 이해관계자의 대립 조정 계획 등이 누락됐으며, 주민 의견과 동향 파악과 관련한 연구가 빠져있다. 또 퇴적물이 특성 조사에서 표층 깊이의 정도와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샘플지역 조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함께 기후 변화의 내

용물, 퇴적층 내용물 증거 미 제시 등 이번 생태계 조사에서 40가지에 달하는 반론이 담겼다.

이와 관련 하늘지구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하늘분화구 습지 주변 생태계 조사 최종보고서에는 하늘에 대한 각종 연구 과제가 누락됐다”며 “이는 단순히 하늘분화구 전체를 습지로 지정하기 위한 제주도의 엉터리 용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의회에서 용역 결과에 대한 반론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제주도는 진술한 답변과 조속한 시일에 보완 수정을 통해 다시 주민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하늘분화구 습지 주변 생태계 조사는 습지 보호지역 지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한 것”이라며 “토지주 등의 의견은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 환경부에 건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토지주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도교육청 ‘가장 우선해야 하는 교육’ 설문 ‘인성’ 최다... 건강·안전·창의력 순

도민에게 ‘학교교육에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인성’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6일 ‘학교교육의 과제 및 학교교육·교육청 지원 만족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12일부터 16일까지 제주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화면접과 모바일앱 조사 혼용방식으로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5%, 응답률은 12.7%다.

먼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학교교육에서 가장 우선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인성이라고 답한 경우가 6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 49.6%, 안전 39.3%, 창의력 30.8%, 학력 10.9% 순으로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조사 결과(인성 73.5%, 건강 44.5%, 안전 37.4% 등)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러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만족한다’는 응답

이 59.7%로 절반을 넘었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29.1%. ‘모름·무응답’은 11.2%였다. 교육청의 지원 평가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가 63%, ‘잘못함’이 21.7%, ‘모름·무응답’이 15.3% 순이었다.

‘학교에서 최우선으로 해결할 과제’는 ‘인성 및 존중교육’이 63.2%로 가장 높았다. 학교폭력 예방(44.4%), 건강·안전교육(36.7%), 사교육비 경감(19.6%), 진로·진학교육(17.1%), 지역 간 격차 해소(15.5%)가 뒤를 이었다.

박희순 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이번 조사로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의 정책 방향성이 도민들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주교육을 위한 정책 수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7일은 ‘제주도교육청 추진정책 관심도·코로나19 관련 지원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송은범기자 sebi119@ihalla.com



해무에 갇힌 용두암 6일 장맛비가 오락가락한 가운데 제주시 용두암 전망대에서 바라 본 제주바다가 해무에 갇혀 오묘하고 신비로운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강희민기자

도두하수중계 펌프장 화재로 한때 중단

도, 오수 유출 여부 조사

제주 하수중계 펌프장에서 불이 나 오수 역류를 막는 펌프기가 전부 가동을 멈추는 일이 발생했다.

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2분쯤 제주시 도두동 제주하수처리장 내 중계펌프장의 오수펌프 1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불은 인명피해 없이 20여분만에 진화됐지만 이날 화재로 오수 역류를 막는 펌프기 4대가 전부 가동을 멈췄다.

도상하수도본부는 오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화조 차량 10대 등을 동원해 오수관 맨홀에서 오수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멈춰섰던 펌프기 4대 중 3대는 복구돼 정상 가동하고 있으며, 나머지 1대에 대해서도 복구가 이뤄지고 있다.

도상하수도본부는 이번 사고로 오수가 바다로 유출됐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소방당국은 누전에 의해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친환경 삼행시’ 온라인 이벤트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가 6일부터 친환경소비문화를 독려하기 위한 ‘친환경 삼행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도민들에게 녹색제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친환경소비문화를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이며, 작성된 삼행시를 선정해 친환경 인증 칫솔 100개를 경품으로 증정할 예정이다.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엉 사랑으로

전기스쿠터 한정특가

기간: ~7월10일까지 그린모빌리티

T.1522-8228 / 010-4512-0755

 <p>279만원 시티 109만원</p>	 <p>400만원 장보리 99만원</p>	 <p>770만원 디포 440만원</p>	 <p>409만원 세비아 프로 149만원</p>
--	---	--	--